

2023. 1. 12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월 1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예방팀

예방팀장	이 은 규	02-3706-1510
담 당 자	김 수 진	02-3706-1514
	류 경 준	02-3706-1511

사진있음 ■ 매수 : 4매

서울시 ‘화재없는 마을 우리가 지킨다’ ... ‘보이는 소화기’ 시민 봉사단 운영

-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손잡고 지역 자원봉사자가 직접 보이는 소화기 점검·관리
- ‘보이는 소화기 안전지킴이’를 희망하는 주민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- 올해도 6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방차 통행근린지역 등에 2,500개 설치 예정

-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손잡고 지역 자원봉사자를 통한 ‘보이는 소화기’ 점검과 관리에 나선다”라고 12일(목) 밝혔다.
 - ‘보이는 소화기’는 소방차 통행이나 진입이 곤란한 지역,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화기를 말한다.
-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‘보이는 소화기’는 설치 이후 현장출동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해왔다.
- 최근 들어 초기에 설치된 ‘보이는 소화기’의 노후화에 따른 시민의 불편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현장출동대원들의 소화기함

관리 부담과 출동 공백 발생 우려도 덩달아 높아졌다.

-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보다 효율적인 ‘보이는 소화기’ 관리 및 현장 출동대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기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‘시민 봉사단’을 운영한다.
- 이를 통해 현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당 마을의 화재안전을 위해 ‘보이는 소화기’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.
- 소방재난본부는 ‘시민 봉사단’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함에 큐알(QR)코드를 부착하여 자원봉사자가 점검결과를 즉시 입력할 수 있게 하였고 ‘보이는 소화기’ 위치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‘서울안전’ 앱에도 등록을 마쳤다.
- ‘보이는 소화기 안전지킴이’가 되고자 희망하는 시민은 ‘1365 자원봉사포털’(https://www.1365.go.kr)에 회원가입 후 통합검색에 ‘보이는 소화기’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.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간단한 교육을 거쳐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- 봉사에 참여한 시간은 ‘1365 자원봉사포털’ 사이트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지역의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나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.

-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올해도 6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, 주택밀집지역, 상가밀집지역 등에 ‘보이는 소화기’ 2,500개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한다.

-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“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예방대책을 통해 자율적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며 “안전하고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관련사진

